

만남

2023년 7월
통권 22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목자를 따라서' 심순화 카타리나 작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농민을 위한 기도	-----	3
신앙 나눔	-----	4
전례 맛들이기	-----	5
소공동체 모임 자료	-----	9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12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성체성사의 삶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농민을 위한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주님과 함께라면 (최영숙 데레사)

밝아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롭게 베풀어주신 축복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서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니
오늘도 영혼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네!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확고한 믿음으로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고난도 십자가 아래에 봉헌하니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성체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웃과 형제자매로 친교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살이 두려울 것 없고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나니
성모님의 묵주기도로 신비로운 은총도 가득 주시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항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 청할 때 주님과 함께라면
어두웠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시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네!

우리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평화 나누고
미사성제로 성전에 용기종기 모여 주님과 함께라면
성령님은 언제어디서나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니
우리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로 축복하여 주시네!

외로운 이국에서 반세기를 희로애락으로 함께 살고
형제자매로 사랑과 평화의 나눔이 주님과 함께라면
성부성자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영원한생명의 길인 천상의 꽃길로 초대해 주시겠네!



✦ [농민주일 특집] 소농이 생명이다

■ 적은 것이 많은 것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교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하며, 다양한 종교 전통들 안에 담긴 가르침, 즉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확신은 적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7월 26일 유엔에 보낸 메시지에서

“폐쇄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인해 공동선과 연대, 만남의 문화라는 가치에 응답하는 식량 생산 체제의 건설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류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 체제를 위해서 소농과 가족농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아 극복 위한 가족적 소농

유엔은 지난 2014년 ‘세계 가족농의 해’를 지냈다. 기아와 빈곤, 식량 안보, 영양 확보, 삶의 질 개선,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전,

가족농업과 소농의 중요성 전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가족농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유엔은 당시 농업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기아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생산 확대, 대규모 기업농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글로벌한 거대 농식품업체와 기업농 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농업은 오히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의 독과점을 양산했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기아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산업농과 농업의 세계화는 생태환경의 문제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을 야기하며 세계의 농업과 식량 공급 체제를 재편해왔다.

이른바 녹색혁명은 대규모 생산량에 집착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며 부유한 농민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빈곤한 농민들에게 더 큰 부채를 부담시키는 지속불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이 이미 체험적으로 증명됐다.

변형된 종자와 화학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졌다.

부유한 선진국들에 의한 저개발국에 대한 대규모 농업 개발 투자는 농지수탈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대부분 농업 개발 자체가 지역민들의 식량 사정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수탈과 착취의 형태가 되기 십상이었다. 지역에서는 오히려 식량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농식품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농업 정책의 지속으로 농업과 농촌은 폐허가 되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존의 농업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4년 유엔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정한 것은 바로 이처럼 가족농이 빈곤과 기아 극복, 식량주권과 영양 개선,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명농업

가족적 소농의 형태로 수행되는 농법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농업부문의 유일한 대응책이다.

인도의 농생태학자인 반다나 시바는 “유기농을 확대하고, 한 품종만을 대량으로 심는 것을 지양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농법”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대기 중에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질소를 빼내어 깨어진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가 식량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다. 그 전체 과정에서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배출된다.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베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농식품을 지구 반대편까지 운송하는 과정까지, 산업화되고 기업화된 식량 생산과 소비 체제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뿜어낸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농과 원주민 공동체에 토지를 재분배하고 지역 시장과 생태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불과 수십 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로써 더 이상의 산림파괴를 막아 지구환경의 보전을 담보하고, 동시에 증가한 세계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기업농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전혀 새로운 물질과 종자를 만들어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훼손한다.

이에 반해 가족적 소농은 생태 농업을 중심으로 땅과 물을 살림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소규모이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토종종자를 지킴으로써 생물 다양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소농의 친환경 농법은 기후변화에도 더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농법 안에서는 다양한 작물 품종을 시간 및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해 기르기 때문에 기후에 덜 취약하다.

반면 엄청난 생산량을 겨냥하는 기업농의 단일 품종 농업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 지속가능한 순환 농업에 대한 관심

소농은 단순히 농사 규모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소농은 철 따라 씨앗을 뿌리고 그 지역의 제철 음식으로 식탁을 꾸리며 화석연료나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농사법을 의미한다.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전통 방식의 순환 농법이다. 즉, 자연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재배된 농산물이 생물의 먹이가 되며 소화되고 남은 것은 배설되어 이는 다시 농작물의 거름이 된다.

화학비료는 이러한 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친환경적 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한국교회는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전통 방식의 순환 농법을 지향한다.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생명농법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난의 급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순환적인 생명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때로는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무릅쓰고서라도 적극적인 구매와 활용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농민회와 함께 유기농을 통해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



연중 제 15 주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1-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평화의 주님! 저희 마음이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수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꾸는 데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요?
-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는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말로 하는 응답입니다. 말 한 마디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고, 지옥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민족화해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2023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콜로 3,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백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아직 정식으로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못한 이 대결은 지금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는 평화의 소명을 더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요즘 우리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던 대화는 중단된 지 오래고, 출구 없는 무력 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우발적 무력 충돌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전쟁 위기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은 이러한 군사적 위기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새로운 법령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추진하였고, 최근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자체를 ‘안보를 위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 핵 공격 시 미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한번 핵무기가 사용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더 강력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힘의 대결은 날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멀고 험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기”(2코린 5,18)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신뢰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첨단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2월 24일 이날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3.2.22. 참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였는지 돌아보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특히 “진정한 승리는 폐허 속에서 세워질 수 없다.” 하시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는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미사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2023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 우리 시대의 성인들 - 성 요셉 모스카티(1880~1927), 축일 4월 12일

성 요셉 모스카티(Joseph Moscati)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평생 나폴리에서 병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난한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인이다.

“요셉 모스카티는 항상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은총을 받은 그는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과 관련된 분야를 이해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7년 10월 25일 모스카티 성인을 시성하면서 했던 이 말은 모스카티 성인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앙 안에서 걸었던 의학도의 길

모스카티 성인은 1880년 7월 25일 이탈리아 베네벤토에서 판사였던 아버지 프란치스코 모스카티와 어머니 로사 사이의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6일 만에 유아세례를 받았다.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확고한 믿음을 물려받은 것은 유년시절뿐 아니라 모스카티의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4살 때인 1884년에 나폴리로 이사한 뒤부터 줄곧 나폴리에서 살았던 모스카티 성인은 어릴 적부터 의학에 관심을 보이던 중 1897년 나폴리대학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판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모스카티 성인이 의학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1893년 모스카티 성인이 13세 때, 그의 형 알베르토가 포병 장교로 복무하던 중 말에서 떨어지며 머리에 큰 부상을 당했다. 머리에 치유 불가능한 병을 갖게 된 알베르토는 집에서 가족의 병간호를 받으며 생활하게 됐고 모스카티 성인도 형을 돌보았다. 몇 년 동안 형을 돌보면서 모스카티 성인은 깨우친 것이 있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효과도 제한적이기에 종교에서 오는 위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스카티 성인은 형 알베르토를 4년 동안 병간호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신앙 안에서 의학을 공부하고자 나폴리대학 의대에 진학했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었던 나폴리대학의 분위기는 신앙과는 무관했다. 공공연히 불가지론이 퍼지고 있었고 성직자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교내에는 비밀 모임들도 횡행해 나폴리대학은 젊은 가톨릭 신자에게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장소였다. 모스카티 성인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했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기도생활에 충실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정을 기울였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굳은 신앙심과 성실한 성품 그리고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1903년 박사학위를 받으며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이때부터 모스카티 성인이 나폴리에서 펼친 의술은 가톨릭 신앙과 실제적인 자비 실천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신도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의사인 모스카티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드러냈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모스카티 성인이 의사로 일하며 가난한 이들, 전염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한 이들을 살리려 펼친 사랑의 의술은 나폴리 시민들을 감동시켰다. 그가 20대 초반 젊은 나이로부터 시작해 평생을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신앙적 바탕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자신의 형을 병간호하면서 이 정신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모스카티 성인은 나폴리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치료했다.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마태 25,44)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환자들의 영혼까지 돌보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신앙을 떠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모스카티 성인의 전인적인 치유를 접하고 신앙 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무료로 진료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면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유아들의 복지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했다. 나폴리 중심가에 위치했던 그의 진료소에는 육체적 치유와 더불어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환자와 시민들이 항상 줄을 이었다.

1906년 나폴리 만 연안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1911년 콜레라가 창궐하자 자신도 전염될 위험에 처하면서도 전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병원 책임자로도 활약하며 부상병들을 돌보는 데 투신했다. 가장 작은 이에게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 베푸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스카티 성인이 병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지녔던 애덕의 정신은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끊임없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의학 연구에도 힘을 쏟아 3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학자로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1911년에는 나폴리대학 화학생리학 교수로 임명됐고 이탈리아를 대표해 국제 생리학 대회에도 참석할 만큼 학자로서도 명성을 누렸다.

모스카티 성인은 1919년 40세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책임자로 임명된 뒤에도 매일 아침 미사에 참례한 뒤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다. 오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환자들을 계속 진료했다. 1927년 4월 12일에도 평소처럼 아침 미사를 드리고 오전 진료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했다. 피로가 느껴져 자리에 누운 것이 그가 선종하기 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선종하기까지 사회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직책이나 명예도 사양한 채 묵묵히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진료활동에 매진했다.

그가 선종했다는 소식은 나폴리 시내에 빠르게 퍼져 나갔고, 나폴리 시민들은 “의사 성인, 요셉 모스카티가 죽었다”고 애도했다. 모스카티의 시신이 나폴리 제수 누오보(Gesu Nuovo)성당에 안치되자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그의 무덤은 꽃으로 뒤덮였다.

모스카티 성인이 선종한 뒤 바로 그를 성인품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모스카티 성인은 1975년 11월에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시복됐고, 1987년 10월 2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됐다.

모스카티 성인의 생애는 실증주의가 학문적 풍토를 지배하던 시대에 과학과 신앙 간의 일치를 추구하고 몸소 실천했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에스텔	우강	영새	주벽	25일	크리스토퍼	김 영 기 Rabe
3일	토마스	강이	신정	행수		야고보	김 형 웅
12일	베로니카	김육	매종	자인	26일	안나	김 순 임 심은 희 최경숙
20일	엘리야 예언자	이동	동성	윤아		아나벨	한 선 지 정정숙
21일	다니엘	심김	동무	근송			
22일	막달레나	김원	원자	자옥	28일	빅토르	허 두 욱
24일	크리스티나	이문	정귀	옥옥	29일	마르타	김 정 숙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김혜림(B)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26일	안나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 7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25	215	499	437
9일	63	211	159	31
16일	439	217	152	411
23일	21	219	163	6
30	63	217	499	437

❖ 7월 전례 봉사 ❖

	독 서	제 병 봉 헌	커피 봉사
2일	김보경 아셀라 김현지 안토니아	허채열 크리스티안 허영란 엘리사벳	4구역
9일	배성우 도미니코 심은희 안나	김치수 도미니코 김영희 클라우디아	1구역
16일	청년회	비르지타회	2구역
23일	이경규 안스카 유곡지 아그네스	이철우 아우구스티노 이영희 세실리아	3구역
30일	허채열 크리스티안 허영란 엘리사벳	배성우 도미니코 심은희 안나	요셉마리아회

♥ 6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

허선애, 강신행,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신유경,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 수잔나, 허채열, 이성원, 박춘실

❁ 공동체 계좌 입금

정정숙, 송문규, 이경규, 옥수 Ranitzsch, 박종래, 손수희

❁ 교구 계좌 입금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최성자, 이경란, 김영복, 배성우, 남궁춘배, 김진호, 이영원,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최화영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 Hamburg 공동체 소식

1. 7월 1일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 본당 주임신부님의 은퇴미사가 있습니다.
2. 7월 22일 17시 북부독일 광부회 글뤽아우프에서 파독 광부 60주년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7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한 주간씩 연기됩니다.
8일 브레멘, 15일 오스나브뤼크, 22일 하노버



이오리출판사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7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2	일	연중 제13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3	월	성 토마스 사도 축일		
4	화			
5	수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6	목			
7	금			
8	토			브레멘 공동체
9	일	연중 제14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10	월			
11	화		꾸리아	
12	수			
13	목			
14	금		2구역 소공동체 모임	
15	토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6	일	연중 제15주일, 농민 주일	요셉마리아회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17	월	제헌절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23	일	연중 제16주일		하노버 공동체
24	월			
25	화			
26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7	목			
28	금			
29	토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30	일	연중 제17주일	사목회	
31	월	성 이냐시오 데 로운라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